

개신대학원대학교 2014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개신대학원대학교 7층 대예배실에서 2014학년도 학위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졸업식에는 신학석사, 성경신학석사, 목회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학석사, 목회연수심화과정 등 총 63명이 졸업의 영광을 안았다.

1부 예배 사회는 신임이사장 조성환목사가 보였고 기도예 개신총회 총무 조영식목사, 설교에는 총회장 박용목사가 예레미야 1:4-10을 본문으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한금기도에 이사 황호연장로, 헌금송에는 계봉원교수, 축도에는 명예이사장 조경대목사의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었다.

2부에는 교학처장 배종열 교수의 사회로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학위수여 청원에 실천처장 김구원교수, 학위수여는 조성현 총장이 수여하였다.

상장수여에는 이사장상에 김재균, 총장상에는 황장하가 수상하였으며 총회장상에 문희재, 바야르체릭이 수상하였다. 이어서 조성현 총장이 훈사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였으며 축하에는 개척총회 총회장 류현목목사, 격려사에는 이기도목사가 맡아 축하와 격려의 말을 하였다.

신학석사(ThM) 졸업자로는 이항남, 황종하, 성경신학석사(ThMBS)졸업자로는 선성지, 조동일, 황금주, 목회학석사(MDiv) 졸업자로는 김경록, 김구예, 김재균, 김치걸, 김현숙, 노동재, 문중수, 박준수, 박하근, 신의식, 윤가람, 이유성, 최세일, 한아결등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총장은 졸업 헌사에서 졸업을 맞는 육신 삼명의 졸업생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고 말하며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졸업생 한 분 한 분, 우리의 선배님들과 후배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영원으로 함께 하사 여호수아처럼 한 세대의 영적 리더로서 크게 사용받기를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헌사를 마무리하였다.



신학석사, 성경신학석사, 목회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학석사, 목회연수심화과정 등 총 63명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는 현재까지 1명의 목회학석사, 2명의 교정학석사, 89명의 사회복지학석사, 54명의 상담심리학석사, 학위과정에서 379명이 졸업하여 학위를 얻고, 비학위 과정에서 143명의 최고목회자과정, 136명의 목회자 학술과정, 184명의 목회자 실천연구과정, 51명의 여교역자연구과정, 3,113명의 목회 연수 및 신학연구과정을 합하여 총 4,00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목사장로기도회 다음달 28일 개최

총회 출범 후 첫 개최, 종암중앙교회서

총회가 출범 후 첫 번째 목사 장로 기도회가 4월 28일 (화) 오후 2시 종암중앙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도회는 총회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하며 총회의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하나되는 기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 조영식 목사의 말에 의하면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개신총회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온 총회원들이 하나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확신한다



고 말했다. 총회가 아심찬 출범과 함께 이제 모든 회원들이 모여 하나됨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든 총회원들이 함께 하고 개신총회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하여 기도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주일 관심 절실

종암중앙교회 500만원 헌금

총회 임원회는 총회 세례교인 헌금 주일을 1차로 2월 22일로 정하고 총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전국 총회 산하의 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회 세례교인 헌금 주일을 지킨 교회들이 총회에 헌금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종암중앙교회(담임목사 조성환)는 세례교인 헌금으로 500만원을 보냈고 순직교회(담임목사 박용)등 총회의 교회들이 많은 금액을 총회

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총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총회에 대한 어려움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 고무적이라고 하며 "현재 총회의 재정상황이 많이 어렵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노회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고 조직되지 않은 관계로 노회에서 보내는 총회 상회비가 많이 적은 상황이다. 이런 때 총회의 교회들이 세례교인 헌금 등이 절실하다. 이에 각 지교회는 총회 세례교인 헌금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총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총회장
박용 목사
(순직한 교회)



부총회장
박찬권 목사
(하나교회)



정로부총회장
진왕수 정로
(종암중앙교회)



서기
하금식 목사
(여전교회)



부서기
김순모 목사
(동서교회)



회록서기
백영강 목사
(덕암교회)



부회록서기
나건용 목사
(희망의 교회)



회계
김영수 정로
(종암중앙교회)



부회계
조계연 정로
(새인일교회)



총무
조영식 목사
(반석교회)



사무국장
최승범 목사
(새인일교회)

사설

개신총회가 나아가야 할 길

개신총회가 태동한지 이제 3개월도 채되지 않았다. 개신총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정립하였다. 교계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교단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조금씩 기틀을 마련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총회 지도부가 애를 쓰고 있다.

사람들은 과연 개신총회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을 지 아니면 금방 사라져 없어져버릴 지 지켜보고 있다. 총회의 시작은 미약하다. 아직까지 노회조직이나 총회 조직의 면에서 전국단위의 조직을 갖추지 못했고 참여 교회나 노회의 수도 우리 예상보다는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금씩 관심있게 보고 참여하겠다는 교회와 노회가 하나씩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올 봄 노회를 기점으로 개신총회의 노회조직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리라 본다. 이를 위해 지도부들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도 개신총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단으로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외형을 갖추고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개신총회의 지도부가 어떤 자세로 노력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개신총회의 창립정신은 개혁교단의 정체성 회복이다. 이는 개혁신학의 정체성 회복을 이루는 것이다. 개혁교단의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하고 개혁신학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 교단을 창립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창립하였다.

그러나 이름도 개혁교단이 아닌 개신총회라고 명명한 것이다. 또한 개신총회는 개혁정신을 가지고 출발한 총회이다. 총회 회원 누구나 총회 회원권을 부여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제를 폐지하여 목회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했고 그렇지만 70세 공직정년을 표방하여 교회 정치는 젊은 총회를 지향하였다.

또한 총회 목사자격고시(준목고시)를 폐지하여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노회별 자체고시를 통해 목사자격을 얻도록 하여 그동안 총회고시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총회가 하지 못하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총회적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갈까 할 것인가 함께 노력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정도 결실을 맺을 때 그동안 관망하던 많은 형제들이 우리 교단으로 복귀하게 되리라 본다.

총회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하지만 큰 총회, 약하지만 강한 총회, 희망하지만 가장 강력한 총회를 만드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곳곳이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교단이 대 분열을 하고 어느정도 교단을 추스르고 회복했지만 이단 문제로 다시 두 번에 걸쳐 형제들이 나누어졌다.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형제들이 다시 한 교단안에 모이는 것은 대 환원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선분리 교단을 합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는 교단의 합동보다는 우선적

으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개신총회만의 정체성과 규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단별 합동은 지양하고 교회별 노회별로 영입해야 한다. 추후에 다른 교단과는 신학이 맞고 정서가 맞고 이해가 맞을 때 언제든지 합동은 가능하다.

개신총회의 미래는 밝다. 많은사람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총회를 창립할 때 우리는 벅대한 총회를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면에서 부족하고 작고 힘들지만 창립정신을 잘 살려간다면 얼마든지 한국 교회의 새로운 총회로서의 모델을 제시하리라 확신한다.

지금까지 목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가 실시하는 준목고시를 치르고 고시에 합격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고시절차 없이 목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본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점검하여 목사후보생으로 당회(교회)의 추천을 받아 노회가 실시하는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한 후 개신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3년의 과정을 수확하

여 졸업한 후 총회가 실시하는 준목고시(목사자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당해연도 총회의 보고후 1년이 지난 후 보통 가을 노회때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임지를 받아 목사가 된다. 통상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고시를 거쳐게 되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불필요한 시험이라는 평가도 있어왔다. 사실 합동이나 개혁교단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만 예상 통합, 고신등의 교단

과 선결과, 점례교, 감리교 같은 교단의 경우 총회가 실시하는 전체적인 목사자격고시는 없다. 다만 이들 교단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년에서 3년간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사역경험을 갖게하는 목회자 인턴십과정을 필수적으로 갖게 하여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혁교단은 단지 시험에 중점을 두고 인턴십 과정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개혁된 제도를 보면 총회가 실시하는 목사 자격고시를 따로 거치지 않고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준목의 자격을 부여하고 1년의 인턴십을 거친 후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목사로 임직하도록 하였다. 개신대학원대학교 3년의 목회학석사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충분히 목사로서의 지적인 소양

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공부한 것이다. 그러기에 오히려 목회 현장에서 목회실용적인 면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노회에서 목사자격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목사로서의 소명과 준비를 확인하는 것이 목사자격을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준목고시는 목사후보생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측면이나 고시생 자체들을 위한 것 보다는 총회 고시부를 위해 준목고시가 유지되고 있다는 불만소리로 들어왔다. 또한 고시 한 번 치르기 위해 고시료 20-30만원에 속박비나 교통비등을 따질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이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목사 후보생들의 문제해소도 좋은 평가가 뒤 따르리라 본다. 준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에 신청하면 준목인허증을 부여한다.

문제는 총회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총회 임원회 개최, 기획위원회 조직·총회 준목고시 폐지

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손석태 목사 목·장기도회는 다음달 28일 개최

제2차 총회 임원회가 개최되었다. 총회 임원회가 2015년 2월 10일 종로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 임원회는 총회 임원 전원 참석하여 1부 예배와 2부 회무처리로 진행되었다.

이 날은 다양한 안건이 올라왔고 긴 시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었다.

먼저 조영식 총무로부터 교단 현 상황과 노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총무는 현재 17개 노회가 정비되어 가는 상황이고 추후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참여 노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노회별로 영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후 처리안건으로 총회 기획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장에 손석태 목사, 서기에 김순호 목사가 선임되었고 위원에 조성환 목사, 하급식목사, 배종열교수, 고태성목사가 선임되었다. 앞으로 총회 기획위원회는 총회 상설위원회로서 활동하게 되며 총회의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총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총회 임원회와 총회에 올려 총회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게된다.

총회 산하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두어서 효율적인 총회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조직을 갖게 되었다. 특별히 위원장에 손석태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이 선임됨으로써 교단신학의 정체성 확립과 계승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기획위원회 면면이 훌륭하여 총회 발전을 위한 훌륭한 역할이 기대된다. 기획위원회는 바로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자에 대한 목사자격과 관련하여 총회의 헌법대로 총회 고시부를 폐지하고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준목자격증을 노회에서 발급하고 1년의 인턴과정을 거친 후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를 통해 합격자에게 목사안수를 받도록 하였다.

그동안 총회에서 실시하는 준목고시는 여러 가지로 폐해가 많았다.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과정을 충분히 이수하여 목사자격에 필요한 공부를 이미 마친

상황에서 또 총회에서 목사자격고시를 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고 지나치게 높은 고시료 등은 목사후보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또한 고시과정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왔음을 볼 때 준목고시 폐지는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목사장로기도회 건과 교역자 수양회 건은 총무와 기획위원회에 일임하였고 기획위원회는 목사장로기도회를 2015년 4월 28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교역자 수양회는 2015년 6월 29일(월)



7월2일(목)까지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추후 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받기로 하였다.

다음 안건으로 개신 신문사 조직건에서 발행인으로 조성환 목사, 편집국장에 고태성 목사로 선정하였고 신문 장간 준비금 후원을 위해 임원들이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총회 세계교인 헌금은 1차로 2월 22일에 하기로 하였고 계속해서 홍보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위원은 추후 날짜를 지정하여 적극돌기로 하였다.

교단 공식 로고건도 보고 받았으나 더 연구하기로 하였고 교단 연합기관 가입건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총회 대표메일로는 rpck0691@daum.net 총회홈페이지 www.rpck.co.kr로 결정하였다. 회의 후에는 부총회장 박찬권 목사님 사모님이 식사를 대접하였다.

7월2일(목)까지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추후 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받기로 하였다.

다음 안건으로 개신 신문사 조직건에서 발행인으로 조성환 목사, 편집국장에 고태성 목사로 선정하였고 신문 장간 준비금 후원을 위해 임원들이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총회 세계교인 헌금은 1차로 2월 22일에 하기로 하였고 계속해서 홍보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위원은 추후 날짜를 지정하여 적극돌기로 하였다.

교단 공식 로고건도 보고 받았으나 더 연구하기로 하였고 교단 연합기관 가입건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총회 대표메일로는 rpck0691@daum.net 총회홈페이지 www.rpck.co.kr로 결정하였다. 회의 후에는 부총회장 박찬권 목사님 사모님이 식사를 대접하였다.

총회 대표메일로는 rpck0691@daum.net 총회홈페이지 www.rpck.co.kr로 결정하였다. 회의 후에는 부총회장 박찬권 목사님 사모님이 식사를 대접하였다.

총회 대표메일로는 rpck0691@daum.net 총회홈페이지 www.rpck.co.kr로 결정하였다. 회의 후에는 부총회장 박찬권 목사님 사모님이 식사를 대접하였다.

총회 대표메일로는 rpck0691@daum.net 총회홈페이지 www.rpck.co.kr로 결정하였다. 회의 후에는 부총회장 박찬권 목사님 사모님이 식사를 대접하였다.

목사 임직 위한 절차 확정

총회가 실시하는 준목고시는 없어

목사자격고시 절차

당회(교회)추천 → 노회 목사후보생고시 →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과정 졸업 → 1년의 준목 인턴과정 → 노회 목사고시 → 목사임직

지금까지 목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가 실시하는 준목고시를 치르고 고시에 합격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고시절차 없이 목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본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점검하여 목사후보생으로 당회(교회)의 추천을 받아 노회가 실시하는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한 후 개신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3년의 과정을 수확하

여 졸업한 후 총회가 실시하는 준목고시(목사자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당해연도 총회의 보고후 1년이 지난 후 보통 가을 노회때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임지를 받아 목사가 된다. 통상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고시를 거쳐게 되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불필요한 시험이라는 평가도 있어왔다. 사실 합동이나 개혁교단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만 예상 통합, 고신등의 교단

과 선결과, 점례교, 감리교 같은 교단의 경우 총회가 실시하는 전체적인 목사자격고시는 없다. 다만 이들 교단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년에서 3년간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사역경험을 갖게하는 목회자 인턴십과정을 필수적으로 갖게 하여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혁교단은 단지 시험에 중점을 두고 인턴십 과정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개혁된 제도를 보면 총회가 실시하는 목사 자격고시를 따로 거치지 않고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준목의 자격을 부여하고 1년의 인턴십을 거친 후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목사로 임직하도록 하였다. 개신대학원대학교 3년의 목회학석사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충분히 목사로서의 지적인 소양

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공부한 것이다. 그러기에 오히려 목회 현장에서 목회실용적인 면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노회에서 목사자격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목사로서의 소명과 준비를 확인하는 것이 목사자격을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준목고시는 목사후보생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측면이나 고시생 자체들을 위한 것 보다는 총회 고시부를 위해 준목고시가 유지되고 있다는 불만소리로 들어왔다. 또한 고시 한 번 치르기 위해 고시료 20-30만원에 속박비나 교통비등을 따질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이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목사 후보생들의 문제해소도 좋은 평가가 뒤 따르리라 본다. 준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에 신청하면 준목인허증을 부여한다.

문제는 총회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문제는 총회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개신신문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총회장 : 박 용 발행인 : 조성환 편집국장 : 고태성 인쇄인 : 이정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604호 / 대표전화 : 02)3674-7008 팩 스 : 02)3674-7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직한교회**



담임목사 **박 용**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 중·고등부 : 오전 9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3층
☎ 02)571-0304 / H/P 010-4210-59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중양교회**



담임목사 **조 성 환**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 1부 :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 30분, 오후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중앙로 19길 18
☎ 02)928-4715 / H/P 010-5490-3754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담임목사 **박 찬 권**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 1부 : 오전 8시, 2부 11시, 3부 오후 2시
- 주일오후 : 오후 7시
-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 중·고등부 : 오전 9시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15길 9
☎ 02)936-7622 / H/P 010-4710-0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전교회**



담임목사 **하 금 식**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 1부 :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 오후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1부 오후 4시, 2부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하가2길 29-41
☎ 063)274-7732 / H/P 010-6651-7732

개혁신학을 말한다

총암 중앙 교회당서 400여명 참석 성황리 개최

2015 개신 세미나 “개혁신학을 말한다”에 대한 세미나가 2015년 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총암 중앙 교회당에서 400여명의 목사 및 성도, 개신 전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예배, 2부 강의 순서로 열렸다. 예배는 배종열 목사(교회총장)의 인도로 박용 목사(예장 개신 총회장)의 기도, 김광채 박사(전 총장)의 설교, 조성환 목사(이사장)의 환영사, 신용현·임종학(증경총회장) 목사의 축사, 조경대 목사(명예이사장)의 축도로 드렸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요한복음 21:15~18)를 제목으로 설교한 김광채 박사는 “잠란 목사, 진정함 목사는 주님 때문에, 그리고 말씀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어 가난해지고 약해진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순전한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한다”며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우리가 서로 책임을 통감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조성환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이 진정함 개혁신학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한국교회에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이 세미나를 통해 참된 개혁신학을 깊이 있게 다루고



김광채 박사

또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부 강의는 김구원 박사(실천처장)의 사회, 조성환 박사(총장)의 개회사, 손석태(명예총장)·서철원(총신대 전 부총장) 박사의 강의, 김병호 목사(증경총회장)의 폐회기도 등으로 진행했다.

조성환 총장은 “지난날 개혁신학이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가치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며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지금까지 개혁신학을 추구했고, 앞으로도 그 정도를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개신대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새롭게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손석태 박사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은 구속사적이다. 구속사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구원이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라는 것이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런데 그리스도를 목표로 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끈, 혹은 맥이 바로 계약이다. 따라서 개혁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계약신학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전 개신대학원 교수이며 총신대학교 조지



신학 교수였던 서철원박사는 신령의 교리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가 되게 하는 근본이라고 말하며 한국교회가 기독교로 은혜의 구원종교로 남으려면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한다. 이 길만

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현 추세대로 간다면 한국교회는 한 세대 후에는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세미나는 개

혁신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개신전문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시의적절한 세미나가 되었다. 또한 과거의 신학적 향수를 자극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매우 뜻깊은 시

간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개신세미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혼탁한 한국교회내에서 개혁신학의 옳은 방향을 잡아주기를 기대하였다. (설교문 5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교회**



담임목사 **김 순 모**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30분
- 주일 1부 : 오전 7시
- 주일 2부 : 오전 11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30분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 나길 38
☎ 02) 429-0927, 3426-0549 / H·P 010-3532-0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암교회**



담임목사 **백 영 강**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오후 4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64-22
H·P 010-8810-9182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망의교회**



담임목사 **나 건 용**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주중매일 : 오후 4시 30분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4길 36
H·P 010-7686-7004

대한예수교 장로회 **반석교회**



담임목사 **조 영 식**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예배 : 1부 오전 9시, 2부 11시, 3부 오후 1시 30분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 유·초등부 : 오전 10시
- 중·고·대학부 : 오후 1시 30분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38길 7
☎ 02) 997-8717 / H·P 010-5184-0193

개혁주의 성경신학 ①



손석태

철학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들어가는 말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에 조성된 총장이 부임하며 학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물론 내적으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에도 놀라운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우리 대학 본래의 모습을 찾아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이러한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문들이 이렇게라도 한자리에 만나니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다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미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입니다. 이미 확장시절에 다 배우고 이는 바는 간단하게 다루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싶습니다.

1.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개혁주의 변증학자, R. C. Sproul은 그의 책, *What Is Reformed Theology?*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한 신학,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학,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신학, 그리고 흔히 알려진 계약신학의 신학이라고 그의 논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말하자면 개혁주의는 하나님, 말씀, 믿음, 그리스도, 그리고 계약을 강조하는 신학이며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바로 칼빈의 오대강령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하여 “칼빈주의적 보수 개혁신학”이다. 칼빈주의라는 말에 종교개혁자 가운데 루터나 츰빙글리의 개혁 사상과 구분하는 말이며, 여기에 보수라는 말을 갖기 사용하는 것은 칼빈주의 가운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적 보수 개혁이 잘 반영되고 함축된 말이 바로 우리 학교의 교훈인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입니다. 신학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를 살리는 신학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

나눔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죽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살리는 신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는 신학을 근거로 목회를 하되, 그 목회는 항상 살아 있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현재형의 신학, 그러니까 살리는 신학을 현재의 현장 목회에 적용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신학을 염두에 두는 말이 바로 “살아있는 목회”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살린다”에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사랑이고, 살리는 것이 진리이고, 정의이고, 선입니다, 살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예술입니다. 요한1서 4:9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요.”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학적 정체성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칼빈주의적 보수 개혁 신학” “다시 말하면”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라는 신학적 정체성 위에 학문을 하고, 목회를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신학이란 무엇입니까?

2. 개혁주의 성경관

우리가 성경신학을 말할 때 항상 그 시작은 성경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전제를 받아들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전제주의자 (Presuppositionalist)라고 공격하지만 이 세상에는 전제가 없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없습니다. 중립과 객관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자체가 벌써 전제입니다. 모든 학문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무신론도 전제이고 신앙입니다. 창세기 1:1. 이 한 구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영원 무궁한 역사의 주관자, 곧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할 수도 있고, 오방언어로 오전말을 먹이시며, 물위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며,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 인간과의 communication 이 가능하며, 바로 여기서부터 성경의 영감과 무오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믿기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모든 현대적 비평을 배격합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현대적 비평의 근본적인 원리와 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쓴 책이라는 전제입니다. 인간이 쓴 책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인간이 쓴 역사책이나 문학 책과 같이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비평 방법을 동

원하여 연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경의 문서성, 성경의 이중 혹은 삼중의 편집성, 성경의 기원에 대한 신화나 전설에 대한 구전, 성경의 고대 근동 문헌과의 연관성 내지 기원설 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철학은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현대의 성경관을 배격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감과 무오의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신학과 교리의 첫걸음 (tyvr) 걸입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신자가 될 수 없고, 신학을 해서는 안 되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개혁주의 성경해석

우리의 개혁주의 선배들은 개혁 사상의 가장 위대한 점은 새로운 성경해석의 도입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의 성경해석은 거의가 팔로나 오리겐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해, 곧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었습니다. 영해란 저자가 의도하지 않는 깊은 뜻 (deeper meaning)이나 숨겨진 뜻 (hidden meaning)을 찾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영해야말로 마귀의 장난이라고 배격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성경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라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맥락적, 신학적 의미를 찾는 새로운 성경해석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성경의 발견과 더불어 새로운 성경해석법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발견한 기독교의 진리를 기초로 이루어진 개혁의 역사입니다.

전통적 개신교는 바로 이 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이후 교회가 성경 중심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성경은 상당기간 동안 조직신학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성경 자체의 해석과 가르침을 통하여 도출된 신학 이론을 근거로 조직신학적 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신앙과 목회에 적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직신학적 이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본문 (Proof Text)으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사실상 성경신학이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787년 3월 30일 스위스의 알트도르프 대학의 신학 교수로 취임하는 요한 필립 가블러 (John Philip Gabler)는 그의 교수 취임연설에서 “성경신학과 교의학의 올바른 구분에 대한 학술 강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신학을 “성경의 종교적 개념을 역사적 사실과 알고 각각 다른 시대와 제목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의 진화를 다른 단계로 취급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했는데 여기서 그는 성경신학을 교의신학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¹⁾

그러나 18세기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적 계몽 사상의 영향은 성경에 대한 비평적 접근에 대한 문을 열게 합니다. 1753년 프랑스의 의사 장 아스트루(Jean Astruc)가 그의 소책자가 성경비평학의 효시가 됩니다.²⁾

그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이름 “엘로힘”(Elohim)과 “야와헤”(Yahweh)를 근거하여 창세기는 J와 E라는 두 자료로 구성된 된 책이라고 주장하고, 1780년 아히콘(Eichhorn)은 이 가설을 오경 전체에 확대하여 오경의 마지막 편집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뒤따라 성경신학은 성경 본문에 대한 자료비평, 역사 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전승사비평 등 갖가지 문학비평을 동원하여 성경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비평적 성경 해석 방법은 철저한 본문의 해례입니다. 그리고 해석자의 전제와 가설에 따라 본문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에 들어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와 하르낙(Adolf von Harnack)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부정하고,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신학계의 주된 논제들이 되고, 이들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확산되어갔다. 결국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접근 방식은 성경의 통일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성경을 한낱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서 내지 위대한 선지자들의 전설적인 무용담이나 설화를 담은 책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³⁾

신학과 교회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 이 세상은 결집할 수 없는 혼란과 타락과 부패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몰락이 서구 문명의 쇠퇴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비평으로부터 성경을 구출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근본주의 운동,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운동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어난 운동이 바로 정경비평, 문학비평입니다. 특히 이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성경의 문학비평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문예적 접근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교회에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성경의 “최종본”(Final Form Approach)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분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성경 본문에서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찾자고 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저자가 사용한 다양한 언어나 문법이나 문체, 비유나 은유 등 문예적 기법이나 고대 근동의, 언어, 역사, 종교 등의 문화적 배경을 성경 해석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플렌도르프, D.J.A. Clines, 웨스트민스터 교수였던 Tremper Longman 등이 앞장서서 주장한 이 수사비평(Rhetorical Criticism)은 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이라고도 하는데, 비평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들은 “문예적 접근”(Literary Criticism), 혹은 본문의 미적 요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학 비평”(Aesthetic Criticism)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예적 접근은 문예적인 기교를 강조하다 보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평도 있지만 그동안 자유주의자들의 성경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에 대하여 성경의 영감과 무오에 대한 변증과 보다 심오한 성경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문예 접근을 통하여 복음주의자들은 창세기 창조기사의 편집성, 노아 홍수 이야기의 고대근동의 기원설, 시편의 다윗 저작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서의 저작설과 통일성 등에 대한 보수주의적 변증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도 역시 문예비평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은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구속사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이며, 구속사의 중심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을 실현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목표로 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끈, 혹은 맥이 바로 계약입니다. 따라서 개혁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계약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약 개념의 기원은 고대 근동세계의 국제정치조약이라고 그동안 믿어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가 만드신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바로 고대 햇족속들이 그들의 분신국과 맺은 종주와 속주의 관계와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아담-만물의 창조언약,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스라엘 왕-이스라엘의 왕의 언약 등은 이 이론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계약공식이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계약의 예나 당대의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계약 풍습을 살펴보면 성경의 계약 사상의 기원은 햇족속들이 사용했던 국제정치조약보다 더 오래 전부터 서민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던 결혼계약이나 입양계약 등이라는 이론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 석

- 1) N. Porteous, “Old Testament Theology,” *The Old Testament and Modern Study*, ed. H.H. Rowley (Oxford: Clarendon, 1951), 312.
- 2) *Conjecture sur les memoires originaia dont il parait que Moysse s'est servi pour composer le Livre de la Genese Avec Remarques qui appuient ou qui eclaireissent ces Conjectures.*
- 3) 손석태 『창세기강의』(서울:ESP, 1993), 7-14, 94-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 정 교 회

담임목사 정 현 욱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오전 5시
- 주일오전 오전 11시
- 주일오후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오후 8시
- 금요일예배 오후 8시
- 유·초등부 오전 9시
- 중·고등부 오전 9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318-18
☎ 02)942-7197 / H.P 010-6616-7197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 양 교 회

담임목사 김 진 일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 중·고등부 : 오전 9시

서울시 강동구 성북구 한천로 96길 82
☎ 02)917-2004 / H.P 010-4415-067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영 광 교 회

담임목사 모 경 출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83번길 6
☎ 061)278-7870 / H.P 010-7687-7004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 성 화 교 회

담임목사 박 만 수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30분
- 유·초등부 :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장유로 26길 17-24
☎ 02)911-4108 / H.P 010-5295-4865

개신대학원대학교

새로운 교수진 영입, 최고의 교수진 구축 나서



개신대학원대학교 제2대 총장이었던 김광채교수(역사신학)가 2015-1학기부터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반학기부터 김광채 교수는 2학년 초대 교회사, 중세교회사 과목을 맡아 강의한다. 김광채 교수는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오래 동안 정교수로서 시무하셨고 잠시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강의하게 되었다. 김광채교수는 개혁신학연구원을 포함하여 개신대학원대학교 동문들에게 매우 인기있는 교수였으며 많은 존경을 받는 명망있는

교수이다. 학교 관계자는 김광채 교수께서 이렇게 다시 개신대학원대학교에 돌아와 강의를 하게 되어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재천교수(신약신학), 서요환교수(실천신학), 김산덕교수(역사신학)는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새롭게 구병욱교수(실천신학)가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다. 구병욱교수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 출신으로 미국

칼빈 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 (Th.M)에서 공부하고 에스버리 신학교에 박사학위(Asbury Theological Seminary (Ph.D.))를 취득하였다. 전도학과 선교학에 관심이 많다. 새롭게 복음서에 이형일 교수, 현대신학에 고경태교수, 계시와 변증학에 윤형철교수 등 훌륭한 경력을 가진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개신대학원대학교의 학문성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신대학원대학교 모든 과정 일제히 개강

철학박사과정은 3:1 경쟁률 보여

개신대학원대학교는 개강예배를 드리고 2015년 1학기를 개강하였다. 지난 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교차처장 배종열교수의 사회로 기도회 실천처장 김구원교수, 설교에 조성현 총장, 축도에 명예이사장 조경대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였다. 총장은 개강예배 설교에서 학교는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학교에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겸손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전하며 학교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조경대 명예 이사장은 작년 개강예배때 보다 두배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말하며 철학박사 과정은 경쟁률이 3:1까지 되어 정해진 숫자가 있어 모두 못 뽑은 것이 아



쉽다고 말하며 학교를 후원해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학박사, 목회학박사, 신학박사, 성경신학박사, 목회학박사, 사회복지학박사, 상담

심리학박사, 코칭학박사, 기독교교육학박사, 학점은행제, 한국어 어학당 등이 일제히 개강하여 학교가 활기차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였다.

■ 개혁신학을 말하다 세미나 설교문



김광채 박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15-17)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는 수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삼상 18: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저는, 베드로의 자기 동료 사도들을 향한 사랑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보다 더 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통 이상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에서 아무도 베드로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는 사실 하나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전부를 나를 위해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시간, 네가 가진 에너지, 네가 가진 재능, 너의 모든 소유, 너의 명예, 너의 지위, 너의 권세, 심지어 너의 생명까지 다 나를 위해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드릴 마음이 있었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심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지난 3년 동안 생사교리를 함께 한 전우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서 수제자 혹은 수사도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리더였습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 -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팔로워들을 잘 챙겨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사도 혹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 주는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사랑이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세 번씩이나 하면서, 마음이 대단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생각을 떨치 버리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진실도 함께 요구하십니다. 사랑과 진실, 이 두 가지는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지닐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 이 두 가지는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과 함께 진실도 같이 요구하신 것은, 당신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마다 “내 양을 먹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먹으면 죽는, 독이든 양식을 공급합니다. 잠깐 목자가 하는 일은 그런 자들을 막는 일입니다. 거짓된 목회자는 자기 벅속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잠깐 목회자는 자기가 설령 굶는 한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제대로 키워 내지 못한 신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월급만 축낸 저 같이 못한 신학 교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후 5:14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딱 한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였습니다. 베드로도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것은 스스로 띠 띠고” (요 21:18)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매 준 띠를 띠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요 21:18) 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장대수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 오후 10시
○ 어린이예배 : 오전 9시
시흥시 연성로 13번길 5-4 유림프라자5층
HP 010-6325-391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임규철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7시
○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 유·초등부 :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21
☎ 02) 3295-2504 / HP 010-5205-3587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말씀교회
담임목사 배상태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성경공부 : 오전 10시
○ 어린이예배 : 오전 9시
○ 중·고등부 : 오전 11시
대구시 동구 화랑로 25길 25
HP 010-4110-3604

대한 예수교 장로회 행복한낙원교회
담임목사 서승주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6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오후 3시 30분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 오후 7시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235
☎ 02) 6326-3217 / HP 010-3218-2170

2014학년도 개신대학원대학교 학위수여식

졸업/훈시



총장 조성현 박사

훈시에 앞서 이 자리에 졸업을 맞는 육십 삼명의 졸업생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하며 격려해주신 가족, 친지, 성도님,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뜻 깊은 자리입니다. 이기가 염마의 품속에서 약 10개월을 지내다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졸업생들은 짧으면 2년, 길면 3년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개신대학원대학교의 품 속에서 지내다가 오늘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물론 학생으로서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대학원대학교라는 그대도 비교적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도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외부적인 공격도 경험했을 것이고, 나의 신앙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이 순간,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부담감과 기대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품 안에서 자라고 배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였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땅 가나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전쟁을 할 생각을 하면 두려워 잠도 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 1:9)

인간의 위로는 작은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위로,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갈급하십니까?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나기 전, 모세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여호수아가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신대학원대학교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동의 비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말미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1:7)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의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1:8)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보다 귀하게 여기고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바로 형통한 삶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흔들려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면 아무 근심걱정 없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 L. R. 스카모프 전 총장님이 신학생들이 특출한 사역지를 찾아 급급해지는 모습을 한탄하며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제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자리가 너무 작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크게 만드십시오. 자리를 크게 만들 수 없다면 큰 자리를 맡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있는 그 곳에서 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이 세상에서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생이라는 마크가 오늘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개신대 졸업생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학교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졸업생 한 분 한 분, 우리의 선배님들과 후배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날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사 여호수아처럼 한 세대의 영적 리더로서 크게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총회 전국여전도회



회장
김선미 권사



증경회장 김선좌 권사



증경회장 김옥련 권사



직전회장 박경순 권사



부회장 김선연 권사



부서기 김옥순 권사



통신서기 김춘자 권사



회계 권보라 권사



부회계 김혜영 권사



총무 유숙희 권사

개혁신학을 말한다 ①



서철원 교수
조지신학

개혁신학의 출발점은 이신칭의 교리이다. 이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신학을 개진하였다. 이신칭의 교리에 근거해서 신학내용을 종교개혁의 근본원리들에 의해서 재구성하였다. 종교개혁의 교리에 근거하여 고대교회가 공식화한 2대 교리를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신학전반을 성경대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 개혁과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종교개혁의 기본교리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이 발견한 성경적 진리들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본적인 요소들이 개혁신학에 많이 들어왔다.

오늘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개혁신학은 칼빈이 그의 기독교강요와 주석들과 신학논제들에서 개진한 개혁신학의 특징들을 주로 다루려고 한다.

칼빈은 이신칭의를 자기의 기본신학으로 삼으면서 성화강조를 강조하였다. 성화가 강조되므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세웠다. 그리고 성화생활에서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이신칭의 교리는 당연히 은혜의 주관성을 강화하게 되어 인간의 공로를 전적으로 배제하였다. 또 은혜의 주관성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예정과 선택교리를 당연한 귀결로 세웠다.

은혜의 주관성의 강조에서 사람의 타락상태에 대해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강조하였다. 또 구원 얻는 일에 자유의지와 그 역할을 전적으로 배제하였다.

교회의 정치를 개선하여 감독제도를 대의정치 혹은 장로정치로 대체하고 발전시켰다. 이로써 민주주의의 꽃피울 토대를 마련하였다.

1. 이신칭의 교리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에 열심 하였다. 유대교도로 있을 때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므로 예수 믿은 후에도 율법준수를 강조하였다. 예수 믿음에 율법준수를 더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여 율법준수에 대단히 열광적이었다.

열렬한 율법주의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공회에는 이방인들이 율법준수의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므로 전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

개혁신학은 종교개혁으로 구성되었다. 종교개혁을 성경대로 완벽하게 수행한 결과로 개혁신학이 나왔다. 개혁신학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된 교회의 신학이다.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된 교회의 신학이다.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하는 일과 신학을 개혁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거의 초대교회와 상응하는 개혁교회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완벽한 개혁신학의 체계를 세웠다. 초월공리와 불행거도 개혁신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체계를 세우지는 못하였다. 칼빈은 성경적인 신학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을 그의 신학함의 근본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만 정당한 신학이고 바른 신앙으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모든 신학함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다.

후에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널리 퍼졌다. 펠라기우스는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을 한 수도승이어서 그의 가르침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반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를 인정하여 유아세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원죄의 효과가 크므로 선행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 없이는 죄 없는 삶은 불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따라 칼타고 지방공회의에서 펠라기우스의 견해가 정죄되었지만 동방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관조하였다. 그리고 고리우스 1세 혹은 대 그레고리우스(Gregorius I, 690-604)라고 불리는 교황은 철저한 금욕주의적 삶을 살던 사람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은혜론과 페라기우스의 자유의지를 합쳐서 은혜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소위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확립하였다.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은혜와 협력하여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혹은 사람이 은혜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을 증가시키시는 것으로도 이해되었다.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에 의하면 자유의지와 신적 은혜가 협력하여 사람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심지어 구제가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도 표현하였다. 따라서 13세기에 토마스 에퀴에르의 은혜의 도움으로 사람이 선행을 행하여 구원받는다 교리가 확정되기까지 세미 펠라기아누스 주의가 성하였다.

13세기에 토마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스킴라신학을 완성함으로써 구원 얻음의 도리가 확정되었다. 사람이 의를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사람이 자격에 의해 분배를 받는 것을 정의로 확립하였다. 토마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의를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토마스도 펠라기우스와는 달리 가르쳤다. 사람이 본래적인 능력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선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은혜가 도우면 본성이 힘을 얻어 선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선행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예수 믿음에 사람의 선행을 더해야한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 구원 곧 의롭게 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을 하여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믿음과 행함을 합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다.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을 내가 다 해야 한다. 물론 은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구원은 내 획득사항이다.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고행과 선행을 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을 온전하게 갖추어야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 받고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을 이루셨어도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언제나 진노하시고 멸망에 이르는 합박을 하시는 존재이다.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중세의 가르침대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온갖 고행을 했어도 의롭다함을 얻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주석과 가르침을 통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만났다(롬 2:4, 롬 1:17, 3:21-22, 갈 3:11, 히 10:38).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칼을 들고 서 있다가 합당하지 않는 자를 목을 치는 분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였다.

사람의 선행과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음을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붙들었다(롬 1:17, 3:21-22, 갈 3:11, 히 10:38, 갈 2:4).

종교개혁의 모든 교회들은 합심하여 이신칭의 교리를 구원 얻음의 근본진리로 받아들였다. 16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얻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하여 종교개혁의 모든 교회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신령에 명시하였다. 먼저 루터교회가 1530년 첫 개혁총회 곧 아우구스부르크 총회를 열어 이신칭의를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으로 확정하였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Confessio Augustana)를 확정하였다.

4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죄용서와 의를 얻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들이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호의를 받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전가하셨다.

5조에도 거의 같은 내용을 개진하였다.

6조에서는 이 믿음이 선한 열매들을 생산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행을 행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죄의 사면과 의롭다함은 믿음으로만 붙잡는다.

1580년 루터계통의 신학자들과 칼뱅의 후계자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다시 합의한 일치공식(formula concordiae)에서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였다.

일치공식 2조 2항; 우리는 펠라기안 주의자들의 큰 오류를 배척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사람이 성령의 은혜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복음을 믿을 수 있으며 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고 이 방식으로 자신이 죄용서와 영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오류를 외에 세미 펠라기안파의 거짓 교리를 배척한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사람의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돌이키는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은혜없이 그 돌이킴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한다.

3조 믿음 조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예외없는 합의를 의해서 교회에서 일치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 가장 비참한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받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의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3조 2항; 우리의 의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면하신다. 우리의 행함이나 가치나 공로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의로 전가하고 수여하신다. 그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로 받으셨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3항;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붙잡는 수단이고 도구이다. 또 믿음만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의 의를 붙잡는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 전가되었다.

(계속)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은혜동산교회



담임목사 서만성

예배안내

- 새벽예배 오전 5시
- 주일오전 오전 11시,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오후 8시 30분

전남 여수시 둔덕길 26
HP 010-5720-1829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정대성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66 한빛하이존 5층
HP 010-6418-3468

대한 예수교 장로회 새안암교회



담임목사 최승범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새벽예배 : 오전 11시
- 성경공부 : 오후 1시30분
- 금요기도회 :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24길 55 4층(ESF)
HP 010-2651-9738

개신신문

개신신문이 전국교회와 함께 교단발전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광고문의 : 010-7730-29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604호



우리 학교는 김광재, 손석태, 서철원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2015. 1/26(월) 개혁신학을 말한다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이렇게 שמחה 기쁘습니다!

“ 개혁신학연구원,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과 가족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 ”

목회학석사(또는 이에 준하는)과정 졸업생이 석사과정(Th.M, M.A)에 입학할 경우 5명에게 졸업 때까지 매 학기마다 등록금의 50%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1

목회학석사(또는 이에 준하는)과정 졸업생의 가족이 목회학석사과정(M.Div)에 입학할 경우 누구든지 졸업 때까지 매 학기마다 등록금의 50%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2



RTS
개신대학원대학교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

목회학석사(M.Div.) 3년 전액 장학생 모집

- 지원 자격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 모집 인원 5명
- 시험 과목 성경, 영어, 면접
- 원서 접수 2015.2.17(화) 17:00까지
- 시험 및 면접 2015.2.23(월)

2015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과정

- 과정 **박사과정:** 철학박사(Ph.D.), 목회학박사(D.Min.), 성경신학박사(Th.D.in B.S.)
- 석사과정: 신학석사, 성경신학석사, 목회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학석사, 코칭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 기독교학석사, 성경연구학석사
- 지원 자격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 시험 과목 전공, 면접
- 원서 접수 2015.2.17(화) 17:00까지
- 시험 및 면접 2015.2.23(월)

교수진을 소개합니다

